

해설 및 예시 답안

■ 문항 1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글의 독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요지파악 능력이다. 또한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개념 및 일반론의 이해와 응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글의 작성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이러한 독해와 분석 및 응용, 그리고 작문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 이 문항이다.

먼저 [문항 1 - 가]에서는 장문의 내용을 제시하여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핵심 논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문항 1 - 나]에서는 주제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개괄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배경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과 생활, 교과서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국어>, <독서와 문법> 등에서 일상 속 언어 생활의 문제를 이번 문항의 주제로 삼았다. 수험생들이 제시된 과제를 친숙하게 느끼는 동시에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대개 수험생들의 일상적 체험과 사실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은연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사례를 채택하고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였다.

2.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는 언어 변화에 대한 두 관점이 언어의 다른 속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언어의 속성들이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문제가 균형을 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 [문항 1-가]의 예시답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은 <긍정>과 <부정> 각각을 지지할 수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인간의 대표적인 특성인 언어가 실생활 속에서 인간의 사고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 글은 <부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힙합이 기존 음악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시도로 새로운 방식의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그 새로운 방식은 분화와 발전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되었듯이 언어에 있어서도 기존 문법을 벗어나는 ‘도우미’와 같은 표현의 등장은 그 자체가 다양한 표현들의 생성을

이끌어 새로운 문화 창출에서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글은 <긍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기는 하지만 사회방언이나 은어와 같이 한 언어권 내에서도 다양한 표현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방언이 소집단 내 소통의 효율성이나 그 집단의 권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은어가 소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동질감과 유대감을 만들고 타 집단과 구별을 지어 그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글은 주로 <긍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언급된 기능의 일부가 부정적으로 판단될 경우 <부정>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신조어 중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말줄임표를 통한 신조어나 외국어,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새로 만들어진 전문용어들이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주로 <부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긍정>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3. 논제 해설 및 예시 답안

[문항 1 - 가]

제시문 (가)의 내용을 300±50자의 범위 내에서 요약하는 논제이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언어는 언중끼리의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 변화와 관련해서 상충된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언어의 다른 속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자의적이란 면이 입증되었는데 이 자의성은 언어변화를 용인한다. 반면에 언어에는 체계적인 문법이 존재한다는 규칙성은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지만 규칙성에 기반한 창조성은 변화를 허용한다. 결국 언어는 세계가 바뀔 때 따라 변해야 하지만 언중의 검증과 용인의 범위 내에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300자)

[문항 1 - 나]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문자메시지에 대해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 중 한쪽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는 논제이다. 두 생각 중 하나를 택하고 왜 그 쪽을 선택했는지를 제시문 둘 이상으로 참고하여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되,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 <긍정(신조어 인정)>을 선택한 경우:

제시된 언어 사용 사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소통의 효율성과 동질감 면에서 긍정적이다. 문자 메시지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줄임말을 쓰거나 띄어쓰기를 생략하면 글자 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줄임말을 쓰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수율, 악플, 하삼’ 등은 본래의 뜻이 파악되기 때문에 소통에 지장이 없다. 또한 담당교수가 수강생들이 익숙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라)에 제시된 언어적 동질감을 형성해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새내기’는 ‘신입생’을 대체한 말이고, ‘댓글’은 이전에 없던 말이지만 더 긍정적인 말로 바꾸거나 꼭 필요한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나아가 ‘뽕사리’는 저속한 용법으로만 사용되던 말을 새로운 영화기법을 뜻하는 전문용어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와 (다)에 제시된 언어의 창조성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나친 줄임말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고, 부정적인 의미의 신조어는 사용자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언어 사용자의 노력과 언어의 본질적 속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멘붕, 국뽕’ 등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말로 대체하여 원활한 소통을 하면 된다. 그리고 언어의 창조성, 사회성, 규칙성 등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멘붕, 국뽕’ 등의 신조어는 자연스럽게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799자)

* <부정(신조어 비판)>을 선택한 경우:

제시된 사례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부정확한 소통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부류만 사용하는 ‘멘붕, 국뽕’은 이 표현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암호가 될 수 있다. ‘뽕사리’ 역시 정착된 표현이 아니니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한영이’, ‘수율’ 등 다수의 줄임말과 띄어쓰기를 무시한 글쓰기는 여러 번 읽혔을 때에만 그 뜻이 파악될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을 방해한다. 결국 문자 내용을 잘 몰라 결석하거나 예습을 못 해 오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언어를 오염시키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멘붕’, ‘국뽕’은 외국어와 한자어의 결합에 특이한 축약까지 곁친 조어법으로 허용 범위를 넘은 신조어이며 비슷한 신조어들을 낳아 우리말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또 언어는 사고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붕괴’, ‘뽕’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단어는 과장되거나 광적인 태도를 부추길 수 있고 ‘국뽕’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으로써 학생들과의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제시된 사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모방만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또래처럼 친밀하게 여길 수는 없다. ‘확인요’와 같은 한자어 줄임말, ‘뽕사리’의 특수한 용법 등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또래가 아님을 느끼게도 한다. 학생들의 표현은 학생들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표현을 사용하여 선생님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801자)

※ 제시문에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공정(신조어 인정)> 선택의 논거:

(가)

-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 어떤 단어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개념과 말소리 사이의 결합을 바꾸거나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 언어에 존재하는 규칙적인 성격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 (-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 원칙을 안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어법에서 살짝 벗어난 문학적인 표현을 구사할 수 있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보고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 (- 단어를 만드는 일반적인 법칙을 안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쓸 수도 있다.)
- 기존의 약속이 날로 발전하는 문물과 사상을 수용하지 못하면 깨질 수밖에 없다.

(다)

- 기존의 것에 대한 저항과 창조
- 당신에게 필요한 말을 당신의 어법으로 만들라
- 음악 이론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힙합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운율에 맞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시켜 준다.
 - (-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힙합을 통해 자기 자신의 처지나 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
- 도우미란 단어도 힙합처럼 분화와 발전의 과정을 밟게 된다.
 - (-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던 그 말이 그 뒤에서 계속 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력도 더 넓혀갔다.)
 - (- 도우미란 한 단어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지킴이, 알리미’ 등의 새로운 말이 연이어 생겨났다.)
-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시도가 어느새 새로운 조어법을 만든 데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

- 나이, 신분, 직업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 이런 용어[사회방언/전문용어]들은 [...] 시간을 절약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권위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언어는 [...] 정체감이나 결속력을 창출하여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 (-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 (- 동질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유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을 타 집단과 분리시키기도 한다.)
 - (- 사투리를 통하여 지역민들은 서로 동질감과 연대감을 갖게 되고, 그 문화적 동질 의식이 곧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마)

- 이런 식의 한자어 줄임말은 원래의 뜻을 드러내면서도 길이가 짧아 효율적이다.
- 줄임말이 원 표현의 뜻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 (그 경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외국어, 외래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어,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 해당 전문가 집단 내의 의사소통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부정(신조어 비판)> 선택의 논거:

(가)

-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
- 언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깨지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 언어가 구속력이 있는 관습이라면 이미 정착된 것이 바뀌는 것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 이러한 문법이 형성되고 나면 이 문법에 따라 말을 하려 노력하고, 문법에 맞지 않은 말을 들으면 거부해한다.
- 이처럼 체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문법은 [...] 쉽사리 바뀌지 않고, 바꾸려는 시도도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 끊임없이 변화려는 시도가 과하여 언중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면 이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

(나)

- 언어는 사람이 세계를 지각하고 사고를 전개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 (- 자신이 배우는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세계에 대한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사람됨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언어생활을 고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한다.
-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믿음. (인간의 분별력에 대한 믿음).
- 외모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실제로 그러한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 ‘쭉쭉빵빵, 얼짱[...]’ 등의 신조어들 역시 [...]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라)

- (사회방언/전문용어는) [...]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권위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을 타 집단과 분리시키기도 한다.

(마)

-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말에 해가 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
- ‘갑툭튀[...]’에 이르러서는 원 표현의 뜻을 알아차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줄임마르미 대부분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말소리 구성을 벗어나기도 한다.
- 이들이(신조어가) 대개 거칠거나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 (- ‘듣보잡[...]’ 등은 장난으로라도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다.)
- 그[전문용어를 쓰는] 집단이 집단 밖과 소통할 때에는 의미 전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 (- 지나치게 외국어, 외래어를 사용한 글을 보면) 알고나 사용하는 말인지,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소통을 위해 쓴 글인지 혼란스럽다.)

4. 평가 기준

[문항 1 - 가]

1. **[기본 조건]** 아래와 같은 핵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언어에 있어 사회성과 역사성의 상충
■ 언어의 자의성 - 언어 변화 긍정
■ 언어의 규칙성(체계성) - 언어 변화 부정
■ 언어의 창조성 - 언어 변화 긍정
■ 속성들 사이의 길항작용(상호 제어를 통한 균형)

2. **[논리성]** 제시문의 논지를 고려하여 분량 배분을 잘 하고, 문장의 연결(접속사, 지시어 등 포함), 논리적 전개가 매끄럽고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형식 요소]**

- 제시문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본문과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하지 말아야 함.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함.
- 논평식 서술(예: “제시문 (가)는 …라고 하고 있다.”)을 하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주어진 분량을 준수해야 함.

[문항 1 - 나]

1. **[논리성]** 논술문의 기본 요건인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가능함.

- 논거가 <다음>에 제시된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서술됨.
- 반대 의견(반박)과 그에 대한 재반박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이 유지됨.
- 문장 구성, 문장의 연결, 논리적 전개가 좋음.

2. **[기본 조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문제의 논점(<다음> 속 사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을 정확히 파악함.
- 제시문 (가)~(마)에서 1개 이상 활용하여 첫 논거를 서술함.
- 제시문 (가)~(마)에서 또 다른 1개 이상 활용하여 둘째 논거를 서술함.
- 예상되는 반대 의견(반박)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재반박) 내용을 포함함. (반박과 재반박은 글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고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3. **[형식 요소]**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한쪽을 선택해야 함.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달지 않음.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져오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주어진 분량을 준수해야 함.

5. 제시문 출전

(가): 고등학교 <국어 하>(천재), <독서와 문법 II>(비상교육)와 관련 자료에서 발췌, 수정.

(나):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미래엔, 지학사)에서 발췌, 수정.

(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출제위원이 작성.

(라):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비상교육), <국어 하>(미래엔)에서 발췌, 수정.

(마):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비상교육, 미래엔)에서 발췌, 수정.

■ 문항 2

1. 출제 의도

[문항 2]는 제시된 자료 속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하여 보유 주택 또는 토지를 처분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되어, 학생들이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경제현상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려 하였다.

2. 논제 및 자료 해설

<다음>에 제시된 주장들의 근거를 주어진 자료에서 정확히 찾아내는 문제로, 제시된 주장은 모두 자료와 부합하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자료에서 찾아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갑]은 가구당 자산의 규모를 베이비붐세대와 전체가구 평균치를 비교해 볼 때 베이비붐세대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체가구와 베이비붐세대에 대해 각각 <표 1>에 나타난 가구수 총계와 <표 2>에 제시된 총자산 수치를 사용해 가구당 총자산을 구하여 비교함으로써 확인한다. 가구당 총자산은 전체가구에서 29,766만원(5,209÷1,750, 또는 2.98억원), 베이비붐세대에서는 39,402만원(922÷234, 또는 3.94억원)이어서 베이비붐세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표 1>에서 전체가구 대비 베이비붐세대 비중이 13.4%(234÷1,750)인 반면에 <표 2>의 총자산항목의 경우 전체가구 대비 베이비붐세대의 비중은 17.7%(922÷5,209)으로 더 크기 때문에 베이비붐세대의 가구당 총자산이 전체가구의 평균값보다 크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을]은 베이비붐세대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전체가구의 평균소득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이는 <표 1>의 소득구간별 가구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구간별 분포에서 베이비붐세대는 최저 두 개의 소득구간(2천만원대와 2천만원 미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구보다 크다.(15.1%<16.2%, 31.8%<41.1%) 반면에 3천만원대 이상의 다른 모든 상위 소득구간에서는 그 비중이 전체가구의 비중보다 더 작기 때문에 「각 소득구간×해당 비중」으로 산출될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소득은 전체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병]은 베이비붐세대 가운데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한 가구 비중이 전체가구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표 3>의 가구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택 소유 가구 중에는 토지를 소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토지 소유 가구 중에도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병의 진술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 소유 가구와 토지 소유 가구의 교집합 비중을 구하라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주택 소유+토지 소유+부동산 미소유」 비중을 단순 합계하여 100%를 초과하는 수치가 교집합의 비중임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전체가구와 베이비붐세대에서 각각 122.2%와 135.6%으로 100%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초과수치가 주택과 부동산을 동

시에 소유한 비중인데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이 비중이 36%(35.6%)로 전체가구의 22%(22.2%)보다 높다.

이외 다른 방법이라도 위에서처럼 교집합의 비중을 정확히 찾아내면 정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 부동산 소유 가구의 총 비중을 먼저 구한 뒤 이 수치를 주택 소유 가구와 토지 소유 가구의 단순 합에서 차감하여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가구의 비중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소유 가구의 총 비중, 「1-부동산 미보유자비중」은 전체가구에 대해서는 $1-34.3\%=65.7\%$ 이다. 이제 이 수치를 주택 소유 가구와 토지 소유 가구의 단순 합(87.9%)에서 차감함으로써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가구의 비중을 도출할 수 있다. 즉 $87.9\%-65.7\%=22.2\%$ 이다. 동일한 방식을 베이비붐세대에도 적용하면 부동산 소유 가구의 총 비중은 $1-18.7\%=81.3\%$ 이고, 이것을 주택과 토지 소유 가구 비중의 단순 합계(116.9%)에서 차감하여 최종 수치를 구한다. 즉 $116.9\%-81.3\%=35.6\%$ 이다.

2) 또 다른 예는 주택 미소유 가구의 비중을 구한 뒤, 이 수치에서 부동산 미소유 가구의 비중을 차감하여 토지만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을 구하고 이 수치를 토지 소유 가구 비중에서 차감하여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가구의 비중을 구할 수도 있다. 전체가구에 대해서 $[1-56.5\%]-34.3\%=9.2\%$ 를 구한 뒤 이 수치를 31.4%에서 차감하면 $22.2\%(=31.4\%-9.2\%)$ 가 도출되고, 베이비붐세대인 경우에는 $[1-74.2\%]-18.7\%=7.1\%$ 를 구한 뒤 이 수치를 42.7%에서 차감하면 $35.6\%(=42.7\%-7.1\%)$ 가 도출된다. 3) 유사하게 토지 미소유 가구의 비중을 구한 뒤, 이 수치에서 부동산 미소유 가구의 비중을 차감하여 주택만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을 구하고 이 수치를 주택 소유 가구 비중에서 차감함으로써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가구의 비중을 구할 수도 있다.

[정]은 베이비붐세대의 토지 보유 가구 비중이 전체가구보다 높고, 토지 보유 가구의 평균 토지가격도 베이비붐세대가 전체가구의 평균가격보다도 높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표 1>, <표 2>, <표 3>을 모두 이용해야 한다. 먼저 <표 3>에서 베이비붐세대의 토지 소유 비중은 42.7%로 전체가구의 31.4%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지 보유 가구당 시가의 평균치는 「토지 자산=(가구수×보유비중)」의 방식으로 구하는데 세 표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 이때 토지의 총가격은 <표 2>에서, 가구수 총계는 <표 1>에서, 보유비중은 <표 3>의 수치를 이용해서 각각 계산해보면 $1,749/(1,750 \times 31.4\%)$ 억원과 $357/(234 \times 42.7\%)$ 억원으로, 전체가구는 31,830만원(3.18억원)인 반면, 베이비붐세대 경우 보유가구당 시가는 35,713만원(3.57억원)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 예시 답안

갑의 주장은 <표2>의 총자산을 <표1>의 가구수 총계로 나누어 확인한다. 가구당 자산은 전체가구는 29,766(5,209÷1,750)만원인 반면, 베이비붐세대는 39,402(922÷234)만원으로 더 높다.

을의 주장은 <표1>에서 확인한다. 소득구간별 분포에서 베이비붐세대는 최저 두 개 소득구간(2천만원대 이하)의 비중(15.1<16.2, 31.8<41.1)이 전체가구보다 큰 반면, 다른 모든 상위 소득구간에서는 작기 때문에 평균소득이 더 낮다.

병의 주장은 <표3>에서 확인한다. '주택소유+토지소유+부동산 미소유' 비중의 단순합계에서 100%를 초과하는 값이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가구의 비중인데, 이 값이 전체가구에서는 22%인 반면, 베이비붐세대에서는 36%로 더 높다.

정의 주장은 <표1~3>을 모두 이용해 확인한다. 토지소유 비중은 <표3>에서 베이비부머는 42.7%로 전체가구의 31.4%보다 높다. 보유가구당 평균 토지가격은 <표2>의 토지금액을 <표1>의 가구수와 <표3>의 보유비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전체가구의 31,829만원[1,749/(1,750×31.4%)억원]보다 베이비부머의 35,729만원[357/(234×42.7%)억원]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612자)

4. 평가 기준

- 가. 갑, 을, 병, 정 모두의 진술에 대하여 판단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지 작성법, 정해진 분량 준수 등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도 만족시켜야 한다.
- 나. [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표 1>과 <표 2>를 모두 이용한다. 가구당 자산을 분수형태로라도 명시하지 않거나 가구당 자산의 단위(전체가구는 2.98억원, 베이비붐세대는 3.94억원)가 틀리면 감점한다.
- 다. [을]의 경우 평균소득을 수치로 계산하여 답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표 1>의 소득구간별 분포에서 베이비붐세대의 분포가 2천만원대 이하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15.1%<16.2%, 31.8%<41.1%), 3천만원대 이상에서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전체가구보다 적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해야 한다.
- 라. [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표 3>에서 베이비붐세대와 전체가구에서 각각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한 가구의 비중을 구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주택과 토지 소유 가구의 단순합계가 베이비붐세대에서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답이다.
- 마. [정]의 주장중 첫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표 3>에서 베이비붐세대와 전체가구에서 토지보유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각 경우(베이비붐세대와 전체가구)에 있어서 토지를 보유한 가구로 비교 대상을 한정된 뒤 이들이 보유하는 토지의 평균시가를 산출해야 한다. 즉 「토지 자산=(가구수×보유비중)」이 아닌, 「토지 자산=가구수」는 오답이다.

5. 자료 출전

- 1) 통계청, 「2011년 가계금융자산 조사」
- 2) 한국금융연구원, 「2013년 금융VIP 시리즈, 2013-06」